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1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CPI의 엇갈린 해석에도, 중동발 AI 화재 등으로 나스닥 중심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3일(화) 미국 증시는 4월 CPI를 둘러싼 엇갈린 해석, 유나이티드헬스(-17.8%) 등 헬스케어업체들의 주가약세에도, 엔비디아(+5.6%)의 사우디 향 반도체 공급 체결, 트럼프의 UAE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허용 가능성 등 중동발 화재에 힘입어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다우 -0.6%, S&P500 +0.7%, 나스닥 +1.6%)

지난 3월 자동차, 철강 등 개별품목 관세에 이어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10% 보편관세의 영향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4월 미국의 CPI는 우려보다는 그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헤드라인과 코어가 각각 2.3%(YoY vs 컨센 2.4%), 2.8%(YoY vs 컨센 2.8%)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대체로 하회했기 때문. 품목별로 보면, 관세에 영향을 받는 음료(3월 +2.4% → +3.2%), 신차(+0.0% → +0.3%), 중고차(+0.6% → +1.5%) 등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4월 중 원자재 약세로 에너지(-3.3% → -3.7%), 음식료(3.0% → 2.8%) 등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을 견인.

그렇지만 관세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 같은 CPI 화재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상 6월 중 발표되는 5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 예상치가 각각 2.43%(YoY, 4월 2.3%), 2.83%(YoY, 2.8%)로 이번달보다 높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는 90일간의 유예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음이 CPI, ISM 제조업 PMI 등의 주요 데이터에 노이즈를 주입시킬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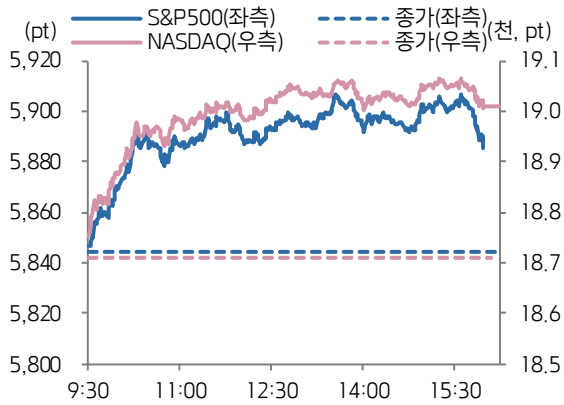
물론 미중 고율 관세, 주요국들에 대한 보편관세의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경감할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음. 실제 관세의 충격이 “경기 침체” or “연준의 금리 인하 무산” or “기업 실적 악화” 등과 같은 일련의 잠재적인 악재를 현실화 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노이즈가 증시 방향성에 간헐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약가 인화로 급락했던 바이오주 반등, 미중 관세 협상 화재에도 직전일 선반영 인식 속 후속 협상 경계심리 등이 지수 상승을 제한하면서 전강후약 장세로 마감(코스피 +0.04%, 코스닥 +0.9%).

금일에는 미국 4월 CPI 안도감 속 엔비디아(+5.6%), 마이크론(+5.1%), 팔란티어(+8.1%) 등 미국 AI 발 화재(사우디에 GB300 블랙웰 공급, 미국 정부의 UAE 향 AI 칩 수출 허용 기대감 등)에 힘입어 HBM, 전력기기 등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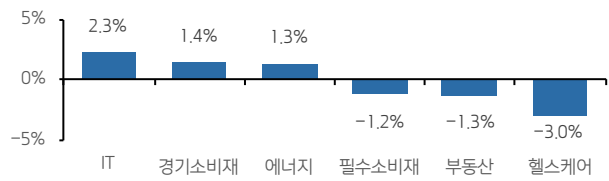
업종 측면에서는 전일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조선, 방산 등 기존 주도주들이 장 후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금일에도 이 같은 관세 무풍 & 주도주 vs 관세 피해주(+HBM주)간의 손바뀜 진행 여부가 메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 또 MSCI 한국지수 반기 리뷰에서 한화시스템, 삼양식품이 신규 편입, 에코프로머티, 엔씨소프트가 편출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장중 이들 편출입 종목들의 주가 및 수급 변화에 주목.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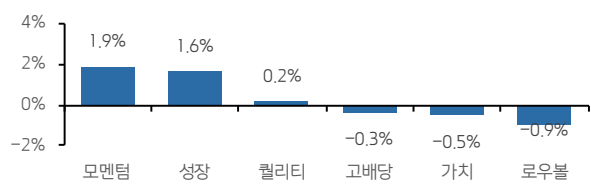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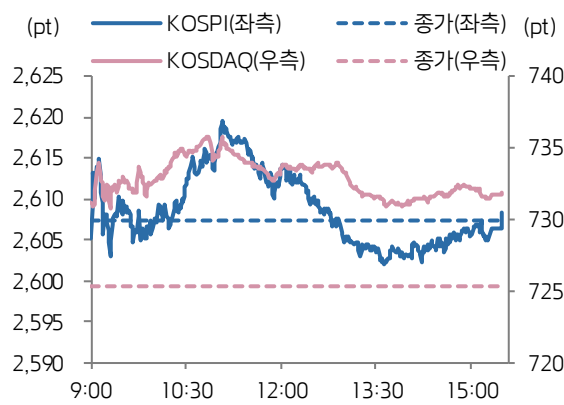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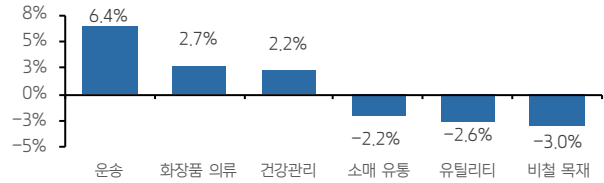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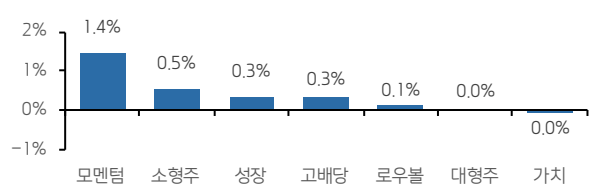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12.93	+1.02%	-14.77%	GM	50.46	+1.71%	-5.03%
마이크로소프트	449.14	-0.03%	+6.77%	일라이릴리	746.06	-1.26%	-3.19%
알파벳	159.53	+0.68%	-15.63%	월마트	95.88	-0.9%	+6.67%
메타	656.03	+2.6%	+12.14%	JP모건	263.01	+1.14%	+10.97%
아마존	211.37	+1.31%	-3.66%	엑손모빌	109.46	+0.27%	+2.67%
테슬라	334.07	+4.93%	-17.28%	세브론	142.35	+0.52%	-0.63%
엔비디아	129.93	+5.63%	-3.24%	제너럴일렉트릭	95.88	-0.9%	+6.7%
브로드컴	232.42	+4.89%	+0.55%	캐터필러	352.54	+2.92%	-1.99%
AMD	112.46	+4.01%	-6.9%	보잉	203.42	+2.46%	+14.93%
마이크론	96.93	+5.03%	+15.32%	넥스트에라	72.11	+3.5%	+1.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08.42	+0.04%	+8.71%	USD/KRW	1,416.30	-0.05%	-3.8%	
코스피200	347.17	+0.03%	+9.23%	달러 지수	101.00	-0.77%	-6.9%	
코스닥	731.88	+0.89%	+7.92%	EUR/USD	1.12	+0.88%	+8.03%	
코스닥 150	1,187.28	+1.48%	+5.09%	USD/CNH	7.20	-0.02%	-1.89%	
S&P500	5,886.55	+0.72%	+0.08%	USD/JPY	147.48	-0.66%	-6.18%	
NASDAQ	19,010.08	+1.61%	-1.5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2,140.43	-0.64%	-0.95%	국고채 3년	2.370	+4.3bp	-22.5bp	
VIX	18.22	-0.92%	+5.01%	국고채 10년	2.725	+3.3bp	-14.6bp	
러셀2000	2,102.35	+0.49%	-5.73%	미국 국채 2년	4.000	-1bp	-24.2bp	
필라. 반도체	4,931.36	+3.15%	-0.98%	미국 국채 10년	4.465	-0.6bp	-10.4bp	
다우 운송	15,059.68	+0.26%	-5.26%	미국 국채 30년	4.906	+0.1bp	+12.5bp	
상해종합	3,374.87	+0.17%	+0.69%	독일 국채 10년	2.680	+3.2bp	+31.3bp	
항생 H	8,386.21	-2.02%	+15.0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148.22	-1.55%	+3.85%	WTI	63.67	+2.78%	-9.2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6.63	+2.57%	-10.73%
Eurostoxx50	5,416.21	+0.44%	+10.63%	금	3,247.80	+0.61%	+20.64%	
MSCI 전세계 지수	871.20	+0.65%	+3.55%	은	32.87	+1.48%	+12.4%	
MSCI DM 지수	3,823.07	+0.77%	+3.11%	구리	468.15	+2.25%	+16.27%	
MSCI EM 지수	1,156.82	-0.43%	+7.56%	BDI	1,304.00	+0.38%	+30.79%	
MSCI 한국 ETF	58.12	+0.14%	+14.21%	옥수수	442.50	-1.23%	-5.6%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17.25	+0.39%	-9.17%
비트코인	104,599.53	+1.86%	+11.62%	대두	1,072.50	+0.12%	+3.65%	
이더리움	2,690.09	+8.21%	-19.61%	커피	376.35	+0.91%	+22.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